알제리전쟁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과거'성찰* - 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1]

노 서 경

Ⅰ. 프랑스 사회의 알제리전쟁 논의
Ⅱ. 전쟁과 폭력의 상징인 고문
Ⅲ. 현재의 폭력, 과거의 기억
Ⅳ. 폭력과 희생, 그 기억의 내면화와 사회화
Ⅴ. 폭력과 희생을 통해 보는 식민주의
Ⅵ. 맺음말

Ⅰ. 프랑스 사회의 알제리전쟁 논의

알제리전쟁은 식민지 해방 투쟁이 고조되는 1950년대에 7년 이상 지속된 프랑스와 알제리간의 전쟁이며 이제 분명 현실이 아니라 역사에 속한다.[2] 그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 지원을 받은 〈역사와 기억: 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의 국가별 사례연구〉(KRF-2002-072-AL2010)의 프랑스구식민지 분과 연구로 수행되었음.

1) 폭력은 영어와 불어의 Violence를 가리킨다. 이 용어의 정치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Violence", *Dictionnaire de philosophie politique* sous la direction de Philippe Raynaud et Stéphane Rials (PUF, 1996), pp. 728-733.

2) 현재의 관점에서 전쟁을 성찰한 책은 Benjamin Stora, *La gangrène et l'oubli : la mémoire de la guerre d'Algérie* (La Découverte, 1998). 전쟁 초기 자료는 Yves Courrière, *La guerre d'Algérie 1954-1957* (Fayard, 2001). 어느 정도 프랑스 중심은 Bernard Droz et Evelyne Lever, *Histoire de la guerre d'Algérie (1954-1962)* (Seuil, 1982). 반식민주의 입장은 Alain Ruscio, *La décolonisation tragique 1945-1962* (Messidor/Éditions sociales, 1987). 영국 역사가의 해석은 Alistair Horne, *Histoire de la guerre d'Algérie* (traduit de l'anglais *A Savage War of Peace*)(Albin Michel, 1980). 그러나 전쟁에 대한 알제리 역사가들의 관점은 이 글에서 다양하게 접하지 못했으며 단지 다음을 참고했다. Mahfoud Kaddache, *Et l'Algérie se libéra 1954-1962* (Alger : EDIF, 2000) ; Mohammed Harbi, Gilbert Meynier, *Le FLN documents et histoire 1954-1962* (Fayard, 2004).

런데 지난 수년간 프랑스는 이 알제리전쟁을 소재로 보기 드문 뜨거운 열기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3] 2000년 여름부터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이 현상은 2001년에서 2년에 고비를 이루고 2004년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 현안이 아니라 과거를 주제로 하는 점에서[4] 이 논의는 언론의 보도만으로 성립되기 어려웠고 역사 연구와 언론의 공동작업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5] 2004년 하르비와 스토라에 의해 편집된 『알제리전쟁 1954-2004』라는 제목의 두툼한 논저는 시사성이 짙은 이 논의에 역사가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말해준다.[6] 당연할지 모르지만 프랑스 식민지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관심을 둔 외국 역사가들과 국제문제 전문가들도 이 현상에 관심을 갖고 논평을 가했다.[7]

알제리전쟁에 관해 프랑스인들이 새로 기억을 더듬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특별하기보다 20세기 후반 도처에서 나타나는 시대상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20세기 말 독일 통일과 소련체제의 붕괴로 당대의 역사는 전공자와 일반인을 가림 없이 대단히 매력 있는 소재가 되었다. 나치즘과 스탈린체제뿐 아니라 남미의 독재정권들과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가 모두 논란과 연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8] 보다 직접적으로 프랑스인들은 1970-80년대에 비시정부에

---

3) 『르몽드』를 비롯하여 『리베라씨옹』, 『뤼마니테』 같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 『렉스프레스』,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 같은 시사주간지, 그리고 프랑스 퀼튀르(France Culture), 아르테(ARTÉ)같은 텔레비전 방송이 모두 이에 참여했다.

4) 현재사를 역사 연구에 끌어들이는 작업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Questions à l'histoire des temps présents* sous la direction de A. Chauveau et Ph. Tétart (Éditions complese, 1992).

5) 프랑스 역사가로는 대표적으로 B. Stora, 또 FLN에 주요하게 참여한 경력을 갖고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역사가 M. Harbi를 들 수 있다. 이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 Gilles Manceron과 Claude Liauzu는 이미 식민지 문제 일반에 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해 온 논자들이다. 또 알제리전쟁에 관한 학위논문을 출간한 소장학자 Raphaëlle Branche, Sylvie Thénault를 주시하게 된다.

6) M. Harbi, B. Stora, *La guerre d'Alg érie 1954-2004 la fin de l'amn ésie* (Laffont, 2004).

7) 프랑스 제국주의를 전공한 William B. Cohen은 2003년 작고 직전까지 근래의 알제리전쟁 논의에 대해 논평했으며 정치사에 주력하는 Alec Hargreaves, 영상화를 분석하는 Philip Dine, 지식인문제에 집중하는 James D. Le Sueur 등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A. Hargreaves, "France and Algeria, 1962-2002 : turning the page?," *Modern & Contemporary France* Vol.10, No. 4 (2002).

8) 독재와 군부 통치, 인종차별, 내전 같은 최근의 과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각국

대한 기존의 인식을 뒤집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관점을 수용하는 경험을 했다. 나치에 협력한 정권은 프랑스인들의 의지로 세워졌던 것이 아니며 점령국인 독일의 지시대로 움직였으리라는 그간의 인식은 깨지고 비시 역시 프랑스인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체제였고 프랑스 역시 유대인을 포로수용소로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9] 그런 배경에서 알제리전쟁은 더구나 프랑스가 방치하고 있던, 어쩌면 은폐하고 있던 어두운 과거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문제였다.[10]

그렇게 보는 것이 지나치지 않는 것은 알제리는 과거 프랑스 제국의 광대한 식민지 중에서도 극단적인 형태의 식민지였다. 법적으로 해외도(DOM)로써 완전 병합된 영토였고[11] 이 때문에 알제리인은 그저 북아프리카인이거나 아니면 프랑스 모슬렘으로 불렸으며 알제리인이라는 제대로 된 이름도 갖지 못했다.[12] 알제리, 그 땅은 자원과 지정학적 조건으로 프랑스의 보고(寶庫)였으나[13] 알제리인, 그 사람들은 어느 식민지인들보다 경멸(mépris)받는 역설(逆說)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날 프랑스와 알제리인들의 관계가 대체로 그와 같았다면 이제 와서 알제리전쟁 또는 알제리문제를 신문 방송이 모두 나서 이야기(discours)하게

의 노력에 대해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인 「역사와 기억 : 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의 각국별 사례연구」를 참조하라.

9) 비시체제를 비판하는 견해는 이용우, 「프랑스에서의 과거 청산 : 해방 후의 대독협력자 숙청」, 〈역사와 기억〉 연구팀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미간행 원고. 2004. 12. 6 ; 비시정부 자체의 역사에 대한 참고자료는 박지현, 『누구를 위한 협력인가 - 비시 프랑스와 민족혁명』(책세상, 2004).

10) 알제리전쟁이 침묵과 은폐에 덮여 있었다는 것은 이 분야의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Henri Rousso, "La guerre d'Algérie et la culture de mémoire," *Le Monde*, 5 avril 2002 ; "La guerre d'Algérie, la mémoire et Vichy," *L'Histoire*, n° 266 (juin 2002) ; B. Stora, *La gangrène et l'oubli*.

11) 해외도는 Département d'Outre-Mer의 옮김임. 프랑스 식민지들은 육군부, 외교부, 내무부의 관장이었는데 알제리는 정복 후 곧 도(道)로 편입되었고 제3공화국 시기인 1881년 내무부 산하의 3개 도로 분류되었다.

12) 프랑스의 알제리 정복과 통치에 대해서는 Charles-Robert Ageron, *Histoire de la France coloniale t. 2 1914-1990* (A. Colin, 1990).

13) 광대한 영토를 지닌 알제리는 지중해와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전략지이고 세계 7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중해 연안 지역의 농산물과 함께 사하라 사막은 유용성이 크다. 알제리 개관은 Richard I. Lawless(Compiler), "World Biblical Essays," *Algeria* (Oxford : Clio Press, 1980), Introduction.

되었다는 것 자체가 흥미 있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수년간 논의는 무성했지만 이 논의의 결말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결과는 거의 없고 이는 설명되어야 할 일 같다. 전날의 식민지에 대해 국가적 사과가 없다면 그 논의의 성격과 의미는 무엇이었을까.[14]

II. 전쟁과 폭력의 상징인 고문

1954년 11월 1일 심야에 민족해방전선(FLN)의[15] 폭탄 투척으로 시작된 전쟁은 1962년 7월 3일 알제리 독립 선포로 막을 내리므로 전쟁 기간이 7년 반이었다.[16] 산악전과 시가전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게릴라 전법과 대규모의 '평정화'(pacification) 작전이 수행되며 최첨단 병기가 등장하는 이 전쟁은 2차대전 후의 새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 그리고 이집트를 비롯하여 한창 주목을 끌던 비동맹 세력의 외교와 정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프랑스와 알제리민족전선 양측에서 각각 알제리를 사수하느냐, 해방을 쟁취하느냐 하는 필사적인 대결을 벌인 만큼 동원되는 병력과 사상자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었다.[17] 그러나 이 분명한 전쟁에 대해 프랑스는 오랫동안 전쟁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프랑스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식민지배와 피지배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안이었다. 식민지에서 독립을 추구하여 벌어진 양측의 막대한 인명 손실과 깊은 심정적 상처는 식민종주국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치안유지 작전을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 의회(Assemblée nationale)에서 이 작전에 알제리전쟁이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

14) W. B. Cohen, "The Algerian War and French Memory," *The Journal of African History* 42, no. 3 (2001), pp. 491-544 ; _____ "The Algerian War, the French State and Official Memory", *The Journal of African History* 41, no. 2 (2000), pp. 295-346.

15) 본문에서 FLN(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과 민족해방전선을 함께 사용한다. FLN이 창설하는 군대가 ALN(Armée de Libération Nationale, 민족해방군)이다.

16) 특히 알제리측의 전쟁 서술로 Mafhoud Kaddache, *Et l'Algérie se libéra*.

17) 알제리 측의 전쟁 사망자를 프랑스군의 자료는 158,000명, 모슬렘 민간인 희생자를 합해 227,000명으로 잡고 있다 : B. Stora, *Histoire de la guerre d'Algérie* (La Découverte, 2002(1991)), p. 90. FLN 측은 통설 100만 명으로 말해왔고 이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있다 : Guy Pervillé, *Atlas de la guerre d'Algérie* (Autrement, 2003), p. 54.

은 전쟁기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999년이었다.[18]

프랑스의 대표적 일간지인 『르몽드』가 FLN 전투원이던 한 알제리 여성이 1957년 프랑스군에 체포되어 군부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보도를 싣는 것은 우연이었겠지만 의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 해 6월이었다.[19] 이 보도는 일회성 기사로 끝날 수도 있었으련만 프랑스 사회는 이를 계기로 마치 고문이라는 화두를 택해 인권 침해의 각도에서 알제리전쟁을 회상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듯 오랜 침묵을 깨뜨리게 되었다. 전쟁기에 고문을 당했다는 루이제트의 증언 내용 자체는 사실은 조금도 새삼스럽지 않았다. 알제의 군정보대에서 자신이 겪은 고문 사실을 마치 외과의처럼 냉정하게 기록한 앙리 알렉의 책이 이미 1958년에 간행되어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다.[20] 식민지 문제에 예리했던 『뤼마니테』, 당시 신예잡지인 『렉스프레스』, 그리고 가톨릭의 『에스프리』지 등이 사회적 금기와 같던 고문 문제를 이미 당대에 들고 나왔다. 알제의 젊은 공산주의자인 피에르 오댕이 고문으로 살해당한 후에는[21] 오댕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고대사학자인 비달-나케는 앞으로 평생에 걸칠 그의 고문에 대한 비판을 여기서 시작했다.[22] 하지만 1950년대의 그것은 정치권이나 지식인 사회 더 나아가 사회 일반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로 전파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날의 사회적 무관심과 달리 2000년의 고문 보도는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왔다. 『리베라씨옹』, 『뤼마니테』 같은 중도, 또는 좌파 신문들, 텔레비전 방송들이 고문에 관한 증언과 토론을 계속 내보냈으며 영상이 주는 호소력은 대중의 감성을 한층 자극했다.[23] 하지만 고문에 대한 언론의

---

18) *Journal Officiel* 244, 20 octobre, 1999, p. 15647.

19) 그 증언은 「알제리 여자」라는 책으로 간행되었다. Louisette Ighilaliz, *Algérienne*, récit recueilli par Anne Nivat (Fayard/Calmann-Lévy, 2001).

20) Henri Alleg, *La question* (Éditions de Minuit, 1958).

21) Pierre Vidal-Naquet, *L'Affaire Audin 1957-1978* (Éditions de Minuit, 1989).

22) P. Vidal-Naquet, *La Torture dans la république 1954-1962* (Éditions de Minuit, 1998).

23) 경찰 권한을 부여받았던 당시 10사단 사령관, 마쉬 장군은 92세에 이르러 "고문은 불가결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Le Monde*, 22 juin, 2000) 반면 특수부대의 오사레스 장군은 그가 고문관이었음을 자인하고 나아가 "그것은 유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도 필요하다면 그 행위를 재연하겠다"고 했다. Paul Aussarès, *Services Spéciaux - Algérie 1955-1957* (Perrin, 2001).

보도와 사회적 비판은 언론에 의해서만 갑자기 형성되었던 것이 아니다. 고문이라는 폭력의 체계와 제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작업들이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1990년대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24]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인 브랑슈의 학위논문이 발표되고 간행된 시점과 신문 방송의 고문 보도의 시기가 거의 같은 해라는 것은 우연이라고만 하기 어려울 것이다. 브랑슈의 논지는, 고문은 알제리에 파견된 군이 프랑스 본국과는 관계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탈(dérapage)이었다고 은근히 믿어온 여론에 대한 일종의 반론이었다.[25]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군문서 조사와 증언들을 근거로 한 고문의 집행과정과 현실감 있는 가해 행위, 심리 분석이었을 것이다.[26]

고문이 무엇인가를 일반이 잘 알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다는 것이 중요했지만 논란의 핵심은 알제리전쟁기의 고문에 프랑스 국가가 책임이 있느냐, 또는 책임을 표명하라는 문제에 있었다. 전쟁기부터 대두한 이 오랜 쟁점을 재론한 것은 2000년 10월 31일 『뤼마니테』에 실린 12인의 호소문이었다. 호소문의 요지는 알제리전쟁기의 고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27] 것이었으며 서명자 12인은 전원 전쟁 당시 고문을 받았거나 알제리 민족해방의 대의를 지지한 인사들이었다.[28] 구타, 거꾸로 매달기, 물고문, 전기고문, 성고문 등[29] 식민지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고문은 이들에게 절대악(mal absolu)이었다.[30] 비달-나케는 고문이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즉

---

24) *On a torturé en Algérie*, Témoignage recueilli par Jean-Pierre Vittori (Éditions Ramsay, 2000) ; Rita Maran, *Torture, The Role of Ideology in the French-Algerian War* (Praeger, 1989).

25) R. Branche, *La torture et l'armé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1954-1962* (Gallimard, 2002). 특히 conclusion. 이 주장에 대해 알제리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의 단체인 재향군인협회는 사실을 모르는 비판으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26) *Ibid*.

27) "Appel à la condamnation de la torture durant la guerre d'Algérie," *L'Humanité*, 31 octobre.

28) 12인은 앙리 알렉, 고문으로 사망한 모리스 오댕의 부인 Josette Audin, 고문 반대로 2개월 간 구금되었던 Pâris de La Bollardière장군의 미망인 Simone de La Bollardière, 고문당한 알제리 민족주의자 Baya Hocine과 Djohor Akrou를 변호한 Nicole Dreyfus, 역사가 Madeleine Rebérioux 등이다.

29) R. Branche, "La tortur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p. 389.

30) "Appel à la condamnation de la torture durant la guerre d'Algérie"

각적인 형태일 뿐이라고 보았다.[31] 물론 12인 중의 한 사람인 마들렌 르베리우가 강조하듯이 알제리전쟁을 수행한 프랑스군 전체가 고문에 가담하거나 고문 지시를 내린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잘못이다.[32] 고문에 반대하여 투옥된 볼라르디에르 장군의 항명사건이 가리키듯이 모든 군장성, 더구나 젊은 군인들이 고문을 묵인하거나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33] 그러나 그러한 면과 공화국군대에 의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고문이 저질러졌고 파리 고위층에서 이를 은폐했으리라는 주장은 별개의 것이었다. 12인의 입장으로는 적의 정체를 모르는 게릴라전에서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문은 필요했다는 상황 논리가 때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대악을 비호할 수 없었다.[34]

실제로 고문관이었던 오사레스에 대한 재판은 열렸고 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고문 행위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았고, 더 이상의 국가 책임론은 소수의 탄원에 머물렀다[35] 물론 국제인권동맹 연합체(FIDH)는[36] 재판을 통한 정의의 수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앞서 말한 12인의 호소가 제기된 2000년 11월 조스팽 총리는 장문의 연설로 그것은 정치적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37] 2000년 12월 공산당 의원들이 제안한 의회조사위 구성에 대해 외교분과 위원장은 두 나라의 역사는 같이 쓰여야 하며, 따라서 역사가들에게 문제를 위임하겠다는 완곡어법으로 이를 거부했다.[38] 그것은 과거사이며 이제 프랑스와 알제리는 국제관계를 맺고 있고 따라서 정치적 결론은 필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는 것이 프랑

---

31) P. Vidal-Naquet, *La raison d'Etat* (La Découverte, 2002).
32) "Ma guerre d'Algérie dans les livres par Madeleine Rebérioux," *L'Humanité*, 26 mars, 2002.
33) "Le combat du général de Bollardière," *L'Express*, 8 mars, 1956.
34) *L'Humanité*, 31 octobre, 2000.
35) 프랑스 항소원은 2002년 오사레스에게 반인륜죄의 죄목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 프랑스 형법은 알제리전쟁 중 가혹 행위에 대해 전범 기소는 면제하고, 전범을 도운 행위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36)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Ligues des Droits de l'Homme
37) Débat sur la torture pratiquée dans la guerre d'Algérie : réponse du premier ministre, M. Lionel Jospin, à une question d'actualité à l'Assemblée nationale, 28. 11. 2000.
38) Écrire l'histoire commune par François Lonc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l'Assemblée nationale, *Libération*, 24 juillet, 2001.

스의 결정이라면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렇듯 식민지배와 고문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프랑스의 논의가 보여준 주요한 특징은 고문을 인간 보편의 고통과 연결시키는 문제의식이다.[39] 고문이 파괴하는 존재가 특수성을 넘어 보편성을 띄게 된다는 차원에 프랑스인들의 고뇌가 놓여 있던 것이다. 전쟁기의 고문은 프랑스인들이 알제리와 그 땅의 사람들을, 그 이름이 카빌(Kabyl)인이든, 아랍인이든, 북아프리카인이든, 모슬렘이든,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의식에 연유했다.[40] 알제의 공수부대 요원들이 FLN 요원을 고문하여 폭탄의 은닉 장소와 동료의 소재(所在)를 대라고 강박 하는 것은 목적 면에서 타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41] 그럼에도 피해당사자가 아닌 한,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가해지는 파괴력을 실감할 수 없는 고문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물(物)로 보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심층의식을 갖고 있었다.[42] 알제리전쟁기의 고문문제뿐 아니라 쇼아(Shoah)에 대해서도 통찰해 온 토도로프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43]

그러나 그러한 인간 존재에 대한 심층적이고 본원적인 문제의식에만 기인하여 수많은 고문 기사들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기억이란, 그것을 만드는 현실이 있을 때 망각으로부터 기억으로 전화되는 성질을 지녔다.[44] 프랑스에서 지난날 자행된 폭력인 고문문제에 대폭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것은 지중해 건너 알제리의 현재의 폭력적인 정치상황이었다.

III. 현재의 폭력, 과거의 기억

개인이든 집단이든, 당하는 자의 의지에 반하지만 행위를 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해로운 행위가 폭력이라면[45] 1990년대 알제리

39) Edward Peters, *Torture* (Basil Blackwell, 1996), pp. 135-139.
40) R. Branche, *La torture et l'armée...*, conclusion.
41) P. Vidal-Naquet, *La torture dans la république*, p. 13.
42) "Retour sur la torture en Algérie", un témoignage inédit par Jacques Duquesne, *L'Express*, 30 novembre, 2000.
43) Tzvetan Todorov, "Torture in the Algerian War", *Salmagundi*, no.135/136 (Summer/Fall 2002), pp. 15-23 (translated).
44) Miguel Bénasayag, "À qui profite le crime?", *Autrement*, n°144 (1994), p. 244.
45) *Dictionnaire de philosophie politique*, p. 729.

의 정치 상황은 거의 전대미문의 정치 폭력으로 물들어 있었다.[46] 한달 평균 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면서 평화시에 민간인에 대해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측은 알제리의 기존 권력에 도전하게 된 과격 이슬람무장집단(GIA: Groupe Islamique Armé) 세력만이 아니었다. 이들을 막을 정부의 치안군은 민간인들이 암암리에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지한다는 혐의로 다시 동족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1988년 총선 불발(不發)에서 시작하여 1992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알제리 정세의 폭력성은 199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47] 1997년 추산으로 그간 고문, 실종, 납치, 불법 처형, 주민 학살로 인한 알제리인 사망자는 10만 명에 이르렀다.[48] 이 참극의 끝에 남아 있는 것은 실종된 자식과 가족의 행방을 찾는 여자들이 이 묘지 저 묘지 사이에서 절규하고, 어린아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문과 학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도 인권단체들의 호소와 운동 외에는 국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관심이 지배적이었다.[49]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일군의 지식인들은 이에 대해 분석하고 논평하여 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졌다.[50] 아무리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무관심과 방관이 현실이라면 그것을 조금씩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지적 비판 밖에 없는 것 같았다. 더구나 이 폭력이 겨냥하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인습과 관행에 대항하는

---

46) 살해의 방법들과 피해 현황에 대해 알제리 감시(Algeria Watch), 국제인권동맹 연합체(FIDH) 등 여러 단체들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중동인권감시〉를 보라. *Human Rights Watch Middle East* , Algeria, "Six Months Later, Cover-up Continues in Prison Clash That Left 100 Inmates Dead", Report by Defense Lawyers Charges Inmates Were Deliberately Massacred (August 1995).

47) 석유 수출의 이윤을 지배층이 독점적으로 배당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일부가 독점에 이의를 제기했고 상당수가 이윤 참여에서 제거된 것에 사태의 발단이 있다. 그 결과 1986년 일부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다시 1988년 10월 봉기의 폭발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깊은 좌절의 신호였다. M. Harbi, "Violence, nationalisme, islamisme", *Les Temps Modernes* "Algérie La guerre des frères", n° 580 (1995), pp. 24-25.

48) 사망자 숫자는 보고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는 유엔이 인정하고 사회학자가 인용한 수치이다. Tassadit Yacine, "Algérie : L'horreur dans l'indifférence, *AWAL*, n° 19, 1999," Dossiers spécial Algérie, p. 111

49) Tassadit Yacine, "Algérie : L'horreur dans l'indifférence".

50) *Algérie. Comprendre la crise* sous la direction de G. Manceron, (Éditions complexe, 1996).

비판자들이었기에 지성은 살아 있어야 했다.[51] 지식인들은 사고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정보를 알리는 까닭에 박해의 대상이었다.[52] 자아와 정체성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경우도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 때문에 알제리 출신이든 프랑스인이든 지식인 사회는 1990년대 알제리 사태를 주시하고 분석, 비판하는 행동을 통해 민중을 절망에 방치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여기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폭력이 알제리가 안고 있는 과거의 무게와 닿아있으리라는 관찰이며 분석이다. 과거의 폭력이 현재의 폭력이 되어 재출현하는 것은 식민지에 쌓여졌던 역사의 토대와 상관이 있다는 관점은 이슬람 전공자들과 알제리출신 연구자들의 공감대를 이루었다.[53] 브뤼노 에티엔은 1997년, 알제리는 수세기 동안 줄곧 외세의 압제를 겪으면서 폭력(violence)과 익숙해졌다는 견해를 제시했다.[54] 유럽의 식민 세력이 들어오기 전인 터키 시대로부터 알제리 독립 후 FLN 정권이 이어지는 현재까지 그 폭력은 중단 없이 지속되었다.[55] 20년 간의 정복에 이어 토지와 문화의 수탈을 합법화하기 위한 식민관계는 폭력 없이 전개되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해방전쟁의 폭력이 닥쳤다.[56] 마지막으로 FLN 국가의 창설기부터 나타난 폭력은 정부수립 이전에 몸에 익히게 된 좋지 못한(mauvais) 방식의 답습이었다.[57] 북아프리카 일원의 정치문제에 정통한 그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알제리에서 폭력이란 여자와 아이들을 목 졸라 죽이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출현으로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58] 이러한 관점을 더 명료하게 하면서 지배자의 야만성과 피지배자의 폭력성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자 한 것은

---

51) Youcef Hadj Ali, *Lettre ouverte aux Français qui ne comprennent décidément rien à l'Algérie* (Albin Michel, 1998).
52) Naget Khadda, préface, *Europe*, "Algérie" (2003).
53) "Les pesanteurs de l'héritage", *Algérie. Comprendre la crise.*
54) Bruno Étienne, "La nouvelle bataille d'Alger", *Revue des Deux Mondes*, (septembre 1997), pp. 104-119.
55) 알제리는 고대부터 페니키아, 반달, 베르베르(Berbère) 족이 이동하여 정주했고 이슬람 세력의 강성과 쇠퇴에 따라 스페인과 이슬람의 각축전의 무대였으며 16세기부터는 터키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56) 알제리문제에 이해력이 깊은 프랑스 역사가들 중에서도 해방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57) B. Étienne, "La nouvelle bataille d'Alger", pp. 105-106.
58) Ibid., p. 105.

타사디트 야신이다.[59] 알제리 출신의 이 사회학자는 토지, 지도층, 법과 윤리 같은 제반 자원과 잠재력을 모조리 박탈당한 사회에서는 이념은 달라졌어도 지배의 방식은 그대로 승계 되는 것을 지적했다. 그 모든 파괴는 결국 알제리인의 정체성의 기초를 파괴하여 비인격화(dépersonnalisation)하려는 기도에 다름 아니었다.[60]

1950년대와 1990년대의 상황은 물론 다르다. 전자는 전쟁 중이었으며 후자는 외면적으로는 평화시기이다. 그러나 종류가 다르고 시기가 다른 폭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사미 나히르는 핵심적으로 지적했다.[61] 양자를 연결하는 것은 민중의 배제라는 개념과 현실이었다. 식민주의란 다름 아니라 민중을 배제하고 특권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였다. 그러한 질서를 체험한 알제리에서 이제 다시 1990년대에 지도층 엘리트 집단과 다수 민중은 대립적이었다. 그리고 그 대립은 식민-피식민의 적대관계를 재생하여 교체했을 뿐이었다. 그러한 관계에 토대한 사회에서는 국민적인 문화 정체성을 배양할 민주주의의 형성이 허용되지 않았다.[62] 정치라는 근대의 통로로[63] 진입하지 못하고 군사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한, 폭력에 대한 의존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불식되기 어려웠다.[64]

여러 연구자들이 여기서 1990년대 알제리의 폭력적 상황이 1950년대 전쟁기의 폭력을 곧바로 연상시키게 한 동력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시기와 두 장면 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연결선이 뻗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엉켜 있는 것이 부인될 수 없다면 지중해 건너 그러한 폭력과 무관한 안전지대 사람들의 뇌리에서도 1990년대 알제리의 폭력과 1950년대 전쟁기의 폭력이 연상작용을 일으키고도 남았을 것이다.[65] 또한 이슬람조직

59) Ibid.
60) Tassadit Yacine, Une généalogie de la violence est-elle possible?, *AWAL*, n° 19, 1999, pp. 115-126. (영어 번역 : Tassadit Yacine, "Is a Genealogy of Violence Possible?",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 30, no 3, Fall 1999, pp. 23-35).
61) Sami Nair, "Le peuple exclu", *Les Temps modernes*, (janvier, 1995), n° 580, pp. 33-45.
62) Ibid., p. 35.
63) *La violence politique dans les démocraties européennes occidentales* sous la direction de Philippe Braud (L'Harmattan, 1993), avant-propos.
64) Noureddine Abdi, "Origine et fondement de la subordination du politique au militaire en Algérie, *AWAL* 24 (2001), pp. 3-19.
65) G. Meynier, "Rapport au passé et conflits historiographiques", *Algérie.*

이 사용하고 있는 학살과 살해는 필경 지난날 FLN이 구사한 방법들을 환기시켜 주었을 것이다.[66]

이 모든 경로를 통해 1990년대의 알제리의 폭력은 동시대의 프랑스에 지난날 식민지배 하에 벌어진 폭력에 대한 기억들을 불러냈다. 감성으로나 이성적 사유로나 폭력은 프랑스 사회가 외면할 수 없고 유보할 수 없는 실체가 되어 다가왔다. 기자가 같은 기자의 수난을 보고 듣는 것은 공감과 연대를 자극하게 되었고 또한 모든 폭력의 보편성을 실감하도록 했다.[67] 폭력(violence)은 힘(force)과 달리 무절제와 측정불가의 속성을 갖지만[68] 그 정도로 심각한 폭력적 현실은 오히려 말하기 거북했던 전쟁기의 고문에 대면하게 하는 힘을 주었다.

그러나 폭력의 기억은 폭력만을 초대하지 않았다. 남아 있는 것은 희생이며 배려해야 할 것은 피해로 인한 상처이고 기억이었다.

IV. 폭력과 희생, 그 기억의 내면화와 사회화

모든 폭력은 그 폭력 앞에서 무력하고 대항의 여지없이 결박된 개인이나 집단 피해자를 상대로 하며 이 일방적 가해에 의해 정신적·물리적·심적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폭력은 가해 행위로만 구성되지 않고 피해와 희생과 필히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희생을 외면하고 폭력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치 않을 것이다. 프랑스 사회가 알제리전쟁에서 발생한 고문이라는 형태의 폭력 행위에 대해 있었던 사실들을 모두 펼쳐놓기로 했다면 동시적으로 피해자의 문제가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고문에만 한정한다면 프랑스군이 가해자이고 알제리인들이 피해자였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정적이지 않았다. 고문은 FLN이 프랑스인들에게도 했고 알제리인 동족들에게도 했다. 이같은 예는 계속 열거할 수 있는데 앞질러 말한다면 알제리전쟁에서의 가해와 피해의 구분

Comprendre la crise, pp. 37-52.

66) Arun Kapil, "Algeria's Crisis Intensifies, The Search for a Civic Pact", *Middle East Report* (Jan.-Feb. 1995), p. 7.

67) Lazhari Labter, *Journalistes algériens : entre le bâillon et les balles* (L'Harmattan, 1995).

68) *Dictionnaire de philosophie politique*, p. 729.

은 전혀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 프랑스인은 가해, 알제리인은 피해라는 도식으로 양편을 쉽게 가를 수가 없고 사정이 이렇게 된 것 또한 많은 부분 식민지라는 체제에 연유했다.[69]

프랑스군은 전쟁의 수행을 위해 지형과 주민에 밝은 현지인의 협조와 첩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생존과 안전을 위한 동기들에 의해 이들 하르키(Harki)가 된 모슬렘들은 종전 직후, 식민지배 세력을 물리치고 독립을 성취한 동족에 의해 대규모의 참살을 당했다.[70] 사법적 절차를 배제하고 원색적인 폭력에 맡겨졌던 하르키들의 수난의 역사는 오랫동안 민족해방의 대의에 가려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71] 전쟁 당시 약 1000만 명의 알제리 인구는 약 100만 명의 유럽계 알제리인과 약 900만 명의 모슬렘 알제리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100만 명 중 75만명이 프랑스-알제리인이었는데 흔히 피에 누아르(Pieds-noirs)라고 불린 이들은 다양한 계층이었지만 전쟁과 함께 식민통치 세력으로 간주되었고 알제리 독립을 보는 1962년 6-7월에 이들은 대거 프랑스로 귀환했다. 농토와 가옥, 재산과 권리, 혜택과 자부심,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또한 식민지가 남긴 피해의 영역에 속했다.[72] 7년여의 전쟁을 통해 소집 재소집된 프랑스 군인은 총 250만 명에 달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경험하고 또 침묵해야 했던 전쟁의 상처도 대단히 복합적이었다.[73]

알제리의 민족주의 투사들이 식민지배의 종식을 위해 싸운 이 전쟁은 어느 전쟁보다도 더 내부 충돌을 일으켜, 프랑스 대 프랑스, 알제리 대 알제리라는 대립 구도 역시 만들어냈다. 제4공화정의 실패에 이어 알제리문제의 해결을

---

69) *Des hommes et des femmes en guerre d'Algérie*, dirigé par Jean-Charles Jauffret (Éditions Autrement, 2003).

70) harki 라는 말은 이동, 움직임을 뜻하는 아랍어 harka에 기원한다. FLN에 의해 학살당한 하르키의 수에는 이견이 있다. Abd-El-Aziz Meliani, *Le drame des harkis* (Perrin, 2001).

71) 하르키의 생존자로써 프랑스에 와서 기술자로 성공한 사두니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일 것이다. 단신의 프랑스 횡단 시위를 통해 하르키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려고 한 그의 투쟁에 대해 Brahim Sadouni, *Destin de harki (Cosmopole*, 2001).

72) '피에 누아르'의 역사에 대해 Jeannine Verdès-Leroux, *Les Français d'Alg érie de 1830 à aujourd'hui* (Fayard, 2001).

73) 참전병사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Claire Mauss-Copeaux, *Applés en Algérie, La parole confisqu ée* (Pluriel, 2001).

위임받은 드골이 알제리 자결권을 인정하자 이에 반발한 군장성들은 비밀군사조직(OAS)을[74] 결성하여 무력으로 저항했다. 이들 OAS 대원이 자행한 테러는 FLN뿐 아니라 민족해방에 동조적인 프랑스인들을 겨냥했고 프랑스가 알제리를 버렸다는 그들의 유감은 깊었다.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에 저항하는 알제리 독립운동가들은 프랑스 지식인과 프랑스 노동자의 직접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일단의 자유직업인들과 시민들이 망을 이루어 FLN 요원들의 도피처도 제공하고 자금 송금도 맡아 법정에 서게 되는 장송사건(affaire Jeanson)은 당시 이름난 사건이었다.[75] 반면 민족운동의 대의를 위해 싸운 것은 마찬가지였음에도 많은 민족운동가들은 FLN의 손에 의해 폭력적으로 제거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76]

그러나 이렇게 전쟁이 만든 피해가 크고 다면적이었어도[77] 피해란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당함을 의식하고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도리라는 것을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유보 없이 선언했다.[78]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말할 권리와 증언할 권리를 거절당했던, 그리고 부당한 삶, 때로 부당한 불명예를 겪어야했던 사람들의 단 하나뿐이었던 운명"이었다.[79] 데리다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건은 전쟁 막바지인 1961년 10월 17일 파리의 북아프리카인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을 말했고, 부당한 처사를 겪은 사람들은 진압대의 무차별 폭력으로 쓰러진 알제리인 희생자들이었다.[80] 후

---

74) Organisation d'Armée Secrète. OAS 문제는 Rémi Kauffer, *OAS, histoire d'une organisation secr ète* (Fayard, 1986).

75) Hervé Hamon, Patrick Rotman, *Les porteurs de valises* (Seuil, 1979) ; Jacques Charby, *Les porteurs d'espoir* (La Découverte, 2004).

76) MNA(알제리민족운동: Mouvement national algérien)에 대한 FLN의 제거에 대해 G. Meynier, *Histoire intérieure du FLN* (Fayard, 2002), pp. 430-459.

77) 희생자들의 후속 세대가 확산되었으므로 어떤 추정에 의하면 통 털어 약 5백만 명이 이에 해당된다 . "La guerre d'Algérie de la mémoire à l'Histoire", par M. Harbi et B. Stora, *La Guerre d'Algérie*, p. 9.

78) Déclaration de Jacques Derrida au colloque : "17 et 18 octobre 1961 : massacres d'Algériens sur ordonnance?"(octobre 2000).

79) Ibid.

80) 사건은 FLN 주도의 테러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진압책을 택한 파리 경찰당국에 책임이 있었다. 협상이 재개되는 1961년 8월 이후 파리에서 북아프리카인들의 시위가 빈발했고 이에 대해 파리 경찰은 10월,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으며 FLN은 이 지시에

에 반유대인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모리스 파퐁(Maurice Papon)이 당시 파리 경찰청장이었지만 그는 이 무력진압의 책임자로 많은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81]

그러나 이 여러 상반되는 기억을 뒤에 두고 지금은 어느 편이든 시간의 힘을 빌려 격렬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긴장관계를 완화한 편이다. 알제리전쟁 종전 협정인 에비앙협정 기념일 제정에 대한 반대에서 보듯이 재향군인 측은 알제리전쟁의 결과에 아직도 승복하기 어렵다. 일부의 운동단체에서는 고문의 법적 규명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그 항의들은 다른 방식 아닌 이지적인 언어의 표현이며 하르키 공동체가 원하는 것도 적개심과 분노, 원한의 재연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르몽드』에서 보도한 고문 피해자 루이제트 이길라리즈는 그의 증언의 마지막에서 자신을 구해 준 프랑스인 의사를 찾았다. 그보다 더, 루이제트는 증언을 하게 된 경우이지만 사람들은 알제리전쟁을 반드시 기억하려고만 하지 않는다. 참전병사들과 고문을 당한 알제리 여성들, 하르키들에게 침묵은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면 신문과 방송에 나와 증언을 하고 자서전을 내놓고 있는 그 모든 기억의 담지자들과, 침묵을 지키는 이들 모두 기억하고 싶은 것과 잊어야 할 것 사이를 오가면서 기억을 개성화(personification)시켰을 것이다.[82] 기억과 대면하고 기억을 반추하면서 보존하고 발언해야 할 것과 지워버리는 동작을 되풀이했을 것이다.[83] 그것은 당사자인 부모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또 많은 부분 삭제되면서 감정의 여과를 거쳐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가열했던 기억이 개인들의 내면에 침잠하고 만다면 공동체의 집단기억으로서 의미가 없을 터이며 이는 비시체제나 쇼아(Shoah)의 기억처럼 알제리전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의 기억들은 공동의 지식과 가치를 갖는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어져야 집단기억으로써 의미가 있다. 그러한

맞대응하여 야간 시위를 계획했다. 시위에 참가한 1만여 명의 알제리 인들이 만 4일간 체육관과 노천경기장 등에서 신문과 폭력을 당한 이 사건의 사진 기록으로 Anne Tristan, *Le silence du fleuve* (Bezon : Au nom de la mémoire, 1991).

81) Jean Einaudi, *La bataille de Paris : 17 octobre 1961* (Seuil, 1991).

82) Amos Funkenstein, "Collective Memory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Hisotry & Memory* 1, no 1(Spring/Summer, 1989), p. 6.

83) T. Todorov, *Les abus de la mémoire* (Paris, Éditions Arléa, 1998), p. 14.

집단기억의 자격과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 알제리전쟁의 피해와 희생의 기억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중을 만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매몰된 기억이 필경은 희망을 갖고 기다렸던 것은 시간을 넘어 미지의 세대가 울려주게 될 공명(共鳴)이고 긍정이었다. 이 경로를 거쳐야 기억은 대중에 대해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는 무기를 구비한다. 자밀라 암란이 소리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알제리전쟁의 여성 전투원들을 찾고 그들의 소박한 회상을 연구의 소재로 삼은 것은 이를 증명하는 작업이었다.[84] 브랑슈에 의해 40년이 지나 재구성된 것은 고문실에 있었던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금 내 몸으로 겪고 있음에도 발설할 수 없던 현실이었다.[85] 이 모든 사라진 사람들에게 불명예, 이름의 은폐, 혹은 기억의 왜곡 같은 설상가상의 폭력을 면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앞서 데리다의 전언은 이러한 의미에서 생동감을 지녔다.

기억의 내면화는 또한 폐쇄적이기만 해서는 성취되지 않는다. 유형무형의 반응을 통해 나의 기억이 전달되었다는, 내가 그들의 기억을 만나게 되었다는, 기억과 기억 사이의 왕래가 일어나야 했다. 그래야 나의 기억은 그의 기억과 만나서 상호 확인을 통해 집단기억으로 입장하는 것이다. 참전병사들의 편지와 사진들, 하르키 후속세대의 글에서 보이는 동질감과 연대의식은 그러한 무의식적 요구에 대한 부응이었다. 이 방식에 의해 이제 이루어진 것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당사자와 독자 사이에 그물망처럼 놓이게 된 연대감이었다. 프랑스 각지에 퍼진 하르키 공동체를 구심점으로 참혹하게 희생당한 부모 세대의 진실을 어떻게든 밝히고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다음 세대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하르키의 역사는 그대로 묻혀버렸을 것이다.[86] 희생자들의 숫자를 조사할 수 없을 만큼 비밀에 붙여졌던 1961년 10월 17일 사건도 증언을 찾는 집요한 노력에 의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희생(Sacrifice)은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 구축되는 새로운 의식의 초석으로 자리잡는 것 같다.[87]

여기서 몇 가지 경우만을 들었지만 알제리전쟁에 대한 많은 질문과 반성

---

84) Danièle Djamila Amrane-Minne, *Des femmes dans la guerre d'Algérie* (Paris : Éditions Karthala, 1994).
85) R. Branche, *La torture et l'armé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86) Dalila Kerchouche, *Mon père, ce harki* (Seuil, 2003).
87) 희생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Jesse Randall Goldhammer, *Reclaiming the Ancient Crime : Sacrificial Violence and Political Foundation in French Thought*, Ph.D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1).

은 이처럼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몫이 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전체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부쩍 관심을 두게 된 사회 분위기도 작용했다. 1970년대 어느 시점까지 사회적인 것(le social)이 최대의 문제였던 시기를 지나자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또한 국가 단위로 해결치 못하는 지역분쟁과 전쟁들 앞에서 사람들이 기대를 걸게 된 것은 사회 자체였다. 알제리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사회의 역할은 실제로는 언론과 학문, 특히 역사학이 선도했다. 언론과 역사학의 상호 침투와 영향력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같은 공동전선이 펼쳐진 것 같다. 그것은 윌리엄 코언의 관점대로 전쟁이라는 이름조차 거부하면서 알제리전쟁을 거의 외면했던 공식 역사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지녔다.[88]

지식 시장이 가하는 상업적 압력이 작동했겠지만 이러한 지적 분위기가 사회에 전파된 데는 언론의 기술적 역량과 함께 역시 사회비판의 감각이 중요했다. 인텔리인 자크 수스텔 알제리총독은 전쟁이 한창 고조되는 1957년 다음 잡지를 반(反)프랑스 선전지로 지목했다. 「기독교인의 증언」(*Témoignage Chrétien*), 당시 신예 주간지인 「프랑스 옵세르바퇴르」(*France Observateur*), 「렉스프레스」(*L'Express*)였다.[89] 그리고 「르몽드」는 수스텔의 언급에서는 빠졌지만 이들과 동격이었고 더 날카로웠던 것은 공산당 신문 「뤼마니테」였다. 그렇다면 알제리전쟁에 대한 오늘의 「르몽드」와 오늘의 「뤼마니테」의 보도태도는 40년 전 논조의 연속이며 재생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신문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매체가 아니라 필수적인 지적 도구로, 즉 인문학 전문분야의 종사자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재료로 올라섰다.[90] 목전의 역사(histoire immédiate)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미셸 푸코이다.[91]

그러나 대중의 역사에 대한 심취와 비평 감각은 언론과 역사만으로는 배양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알제리 또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문필 활동은 지난 20여 년간 놀라운 기법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학이 사

88) W. B. Cohen, "The Algerian War and French Memory".
89) J.-P. Rioux, J.-F. Sirinelli, *La Guerre d'Alg érie et les intellectuels français*, (Éditions complexe, 1991), p. 219.
90) 또한 1980년대 이후 풍부해진 북아프리카권 출신 지식인들의 저술과 미간행 학위논문들이 프랑스 언론에 대해 보도와 분석에 깊이를 더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91) "*Le si ècle des intellectuels*, épisode" De Sartre à Foucault, France 3, janvier 1999.

회비평과 현실참여를 구현하는 하나의 증거는 타하라 벤 젤룬의 『프랑스식 영접』 같은 대중문학 작품이다.[92] 야신(Kateb Yacine), 마메리(Mouloud Mammeri), 딥(Mohamed Dib) 같은 5-60년대의 세계적 작가들에 이어 새 세대의 북아프리카 문인들은 이 지역과 프랑스 문화의 합류를 지향한다. 1990년대 알제리의 폭력적 정세를 맞아 "교양이 무지를 이기고, 인간애가 야만에 대해 승리하도록" 나약함을 거부할 수 있던 것은 이렇게 비축된 인문주의의 토대에 의거했다.[93]

V. 폭력과 희생을 통해 보는 식민주의[94]

다시 말하지만 이상의 프랑스 사회의 논의에서 분명한 것은 그것이 국가중심의 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식민지를 통치한 나라와 통치를 받은 나라의 청산의 요체로 상정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알제리에 대해 어떠한 공식 사과도 표시하지 않았고, 배상을 제의하지도 않았다.[95] 프랑스는 가해자로, 알제리는 피해자로 보는 관점이 프랑스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인가부터 의문이지만 어떻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상과 사과를 요청하지 않는데, 가해자가 응답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다.[96] 정부에서 취한 조치는 알제리전쟁이라는 명칭의 법적인 인정, 하르키들에 대한 일부의 보상, 1961년 10월 17일 사건의 기념패 건립 같은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해외도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130년간의 식민지배를 해온 나라에서 그 결과였던 식민지 전쟁에 대해 한창 논의하고 공식적인 표명이 이에 그친다면 근본적인 의문이 따른다. 식민지로부터 민족해방의 날을 찾아

92) Tahar Ben Jelloun, *Hospitalite française* (Seuil, 1997(1984)).
93) Nazet Khadda, Préface, *Europe* (2003). "Algérie".
94) colonisation 이 식민지 건설과 함께 먼저 나타난 용어로써 식민종주국의 식민화에 대한 긍정적 함의를 가진 반면 colonialisme(식민주의)은 뚜렷하게 식민화를 비판하는 차원의 용어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Marc Ferro, "Le colonialisme, envers de la colonisation", 『프랑스사 연구』 11 (2004. 11), pp. 159-172 (국문요약 : 김인중, 식민지 체제, 식민지화의 이면)
95) Mahfoud Kaddache, "La France doit assumer son passé devant le tribunal de l'Histoire," *Libert é* (12 décembre 2000).
96) Jacques Marseille, *France et Algérie, Journal d'une passion* (Larousse, 2002), préface.

싸우고 전사한, 고문실과 수용소에서 핍박당한 알제리 민중의 희생은 무엇이었는가. 그뿐 아니다. 7년간의 전쟁만이 결산의 대상에 오른다고 할 수 없다. 1830년대 프랑스의 침공 시 300만 명이었던 알제리 주민은 카빌(Kabyle)과 사하라까지 뻗는 정복전쟁이 끝나는 1872년, 정복과 질병에 의해 210만 명이 되어 있었다. 1차대전으로부터 식민지배의 절정기인 1930년대와 1950년대까지 경제적 수탈과 종교적 탄압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과한 것은 알제리인들이 지닌 모든 고유성이 강제적으로 부정(否定)된 점이다.[97] 1945년 5월 세티프 봉기에 대해 무고한 양민을 집단 학살하는 진압작전은 그러한 부정의 절정이었다.[98] 식민지인이기 때문에 파리 시내 싸구려 호텔에서 교대로 잠을 자고 노동하는 생존조건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도 고유한 존재라는 인식을 얼마나 소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인 것이다.[99]

그러나 국가 권력과 권위에 의한 규명과 사과의 부재로 인해 프랑스 사회의 이 모든 논의가 의미 없고 무(無)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100] 망스롱 같은 일부의 역사가들은 과거 특히 정복기의 식민지 역사가 반인륜죄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그러한 의견은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101] 그보다는 역시 다수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선 2004년에 간행된 주요한 논문집의 부제가 가리키는 대로 이 식민지 전쟁에 대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말하지 않고 지낸 시간은 끝이 났다.[102] 논문집의 부제 그대로 하면 〈기억상실의 종식〉이었다.[103] 수십년의

---

97) Omar Carlier, "Violence(s)", *La guerre d'Algérie 1954-2004*, 특히 pp. 358-378.

98) 세티프(Sétif) 봉기를 연구한 대저로 Annie Rey-Goldzeiguer, *Aux origines de la guerre d'Algérie, 1940-1945* (La Découverte, 2002) ; 또한 Yves Benot, *Massacres coloniaux 1944-1950* (La Découverte, 1995).

99) Taleb Bellula, ch. II "Situation générale des algériens en France de 1954-55 à 1962", *Les algériens en France* (Alger : Éditions nationales algériennes, 1965).

100) R. Branche, "La tortur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La Guerre d'Algérie 1954-2004*, p. 401. Sylvie Thénault, R. Branche, "L'impossible procès de la tortur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Justice, politique et République, De l'affaire Dreyfus à la guerre d'Algérie*, sous la direction de Marc Olivier Baruch et Vincent Duclert (Éditions complexe, 2002).

101) G. Manceron, *Marianne et les colonies* (La Découverte, 2003), p. 300 ; Oublier nos crimes, L'amnésie nationale : une spécificité française?, *Autrement*, n°144 (1994).

102) *La Guerre d'Algérie 1954-2004*.

103) *La fin de l'amnésie*

시간이 걸렸지만 고문이 체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가해 당사국의 국민들이 대체로 받아들였다. 분명한 사실에 대한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인정이 그렇게도 어려웠다는 것이 식민주의(colonialisme)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해주지만[104] 알제리의 민족주의 역사가 마후드 카다슈는 프랑스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를 유보를 두지 않고 평가했다.[105] 이 논의의 동기가 프랑스인들의 회개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진상 규명을 의식한 것이든 관계없다는 태도였다.[106]

그러나 논의의 결과는 이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독자와 시청자가 알제리전쟁기의 고문에 대한 증언과 회상에 대해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식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연결되었다. 알제리전쟁 논의가 두 나라가 아니라 프랑스에서만 이루어졌어도 사람들은 식민지 과거를 떨쳐버릴 수도 없고 알제리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고문으로 시작된 알제리전쟁의 기억과 논의는 결국 식민지배 전체와 직접 연결되었다.[107] 이 글은 그러한 연결을 염두에 두고 그 논의와 기억의 중심에 폭력에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그 때 폭력이란 희생과 함께 하는 복합적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전쟁은 분명 폭력의 형상화이지만 식민지배에 대해 폭력이 왜 문제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에메 세제르의 다음과 같은 식민주의 비판이 떠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힘들다. 어느 정도는 수사적인 어법이 섞여있기도 하지만 세제르는 1950년대의 유명한 논설인 「식민주의와 문명」에서 이렇게 통렬한 구절을 적고 있다.

> 우선 어떻게 식민화가 식민지 지배자들을 반(反)문명화 하는지, 문자 그대로 얼간이로 만들고 지배자를 타락시키는지, 깊숙이 잠들어 있는 본능, 탐욕과 폭력과 인종적 증오, 도덕의 상대주의를 일깨우는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문명의 성과는 주검의 무게로 측정된다. 어디서나 퇴보가 일어나고, 악성 종양은 자리를 잡아가고, 감염의 온상은 점점 넓어진다. 마침내

104) 오사레스 장군의 고문 행위 인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한 것은 그의 범죄가 아니라 그가 이를 발설했다는 것이었다. Claude Liauzu, *Violence et colonisation*, p. 8.
105) Mafhoud Kaddache, “La France doit assumer son passé”
106) Ibid.
107) 식민주의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알제리전쟁 논의에서 유발된 것은 역사가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M. Ferro(s.d.), *Le livre noir du colonialisme*, Introduction, p . 12

> 이 모든 조약이 유린되며, 이 모든 거짓은 널리 퍼지며, 이 모든 처벌되어야 할 원정들은 용인되며, 이 모든 죄수들이 결박되어 심문 당하며, 이 모든 애국자들이 고문당하며, 이 모든 인종적 오만은 용기를 얻은 나머지 유럽의 혈관 속에 독(毒)으로 흘러들며, 대륙의 야만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 사이비 인간주의에 대해 내가 맹렬히 비난하는 지점이 바로 그 곳이다. 인간의 권리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협착하게 만들었으며, 혹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파편화 되고 협소하고 지엽적이며 불공정한 개념일 뿐, 그래서 결국 인색하게도 인종주의일 뿐이다.(…)[108]

세제르의 표현이 시적(詩的)이기도 하다면 사르트르는 동일한 현실에 대해 보다 직설적인 어법을 택했다. "알제리를 포기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 우리는 소유했던 것이 없으므로 포기할 것도 없다"는 그의 자성이자 비난은 식민지배를 당연시하는 당대를 표적으로 했다.[109] 다니엘 게랭이 반식민주의를 외친 것도 식민지 비판을 경원시하는 사회풍토에 대한 저항이었다.[110] 사회의 그 무관심과 방관 때문에 사르트르는 식민지배를 개개인의 선악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나날이 더 가혹하고 더 비인간적으로 되어야만 유지되는" 체제로 규정했다.[111]

이제 그 식민화의 표상과 같았던 알제리 지배에 폭력이 일관했다는 해석은 고립된 절규가 아니라 역사적 인식으로 한편에서 숨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식민화=문명화라는 집요했던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워도 분명 균열을 일으키고 코언의 논평대로 수정되었다.[112] 클로드 리오쥐가 편집한 『폭력과 식민화』는 알제리에 대해서 "알제리 정복은 끔찍했다(épouvantable)"는 상징적인 첫마디로 그 지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이 동반했음을 시사했다.[113]

---

108) "Discours sur le colonialisme", *Aimé Césaire, Anthologie* (Éditions Sépia, Saint-Maur, 1995), pp. 129-136. 「역사와 기억」팀 구프랑스식민지 분과 이철기의 번역임.

109) J.-P. Sartre, "Le colonialisme est un système", *Guerre d'Algérie & colonialisme* (Comité d'Action des intellectuels contre la poursuite de la guerre en Afrique du nord, 1956), p. 68.

110) Daniel Guérin, C*i-git le colonialisme, Algérie, Inde, Indochine, Madagascar, Maroc, Palestine, Tunisie, Témoignage militant* (Paris/La Haye, Mouton, 1973).

111) J.-P. Sartre, "Le colonialisme est un système", p. 73.

112) W. B. Cohen, "The Algerian War and the Revision of France's Overseas Mission", *French Colonial History*, Vol.4 (2003), pp. 227-239.

113) Claude Liauzu (coordination), *Violence et colonisation* (Éditions Sylepse, 2003).

그러나 이러한 고문과 폭력에 대한 관심은 종국적으로 사람을 사물화(chosification)하는[114] 식민지적 지배관념에 대한 저항이며, 사람이 사물이 아니라는 반론으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알제리전쟁기 고문의 체제에 항의한 장군의 미망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인간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했다.[115] 문제를 두 공동체가 같이 보자는 12인 호소문과 같은 제의는 책임의 회피라는 측면만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116] 정부 차원에서도 두 공동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것에는 우리도, 그들도 같이 인간이라는 인정이 깔려 있다. 단편적인 자료들에 의해서이지만 이로써 알제리전쟁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대면과 성찰에는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는 폭력적 행위에 반대하는 양식이 담겨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가 인권을 천명한 공화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랜 식민지배의 폭력이 그에 배치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의 권리를 근대정치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체제의 성립에 주력해온 것과 다른 문명, 다른 인종의 권리를 부정하고 박탈하는 행위는 공존이 가능한 것이었다. 인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 또한 지나친 자부심의 발로일 수 있다.

1950년대 알제리전쟁기에 어려운 비판을 가한 소수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시간과 세대를 넘어, 이제 지적 소양을 갖춘 상당한 다수의 응답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매우 느리고 미약한 의식의 진전이었지만 보편적 인간애를 지향하는 한 사회를 보여주는 움직임이었다. 물론 그러한 인식이 얼마나 다수의 것이 되어 여전한 또는 더 강화된 식민주의적 극우 관념을 제어할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여기고 도구로 간주하고 토착민(indigène)이라는 기이한 이름을 붙이던 시대는 잘못이었다는 인식은 사회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1958년 "다른 민중을 억압하는 민중은 자유로운 인민일 수 없다."고 프랑스 노동자들을 향해 호소하는 알제리노동자협회의 선언 역시 헛되게 끝났다고 보이지 않는다.[117] 고문과 전쟁의

114) A. Césaire, "Discours sur le colonialisme", *Anthologie*, p. 132.
115) "Un combat pour l'homme, Entretien avec Simone de Bollardière", in C. Liauzu, *Violence et colonisation*, pp. 5-8.
116) Gilles Manceron & Hassan Remaoun, *D'une rive à l'autre, la guerre d'Algérie, de la mémoire à l'histoire* (Syros, 1993).
117) "Adresse aux travailleurs français", Déclaration de l'A.G.T.A. le 30 mai 1958, *La révolution algérienne par les textes*, documents présentés par André Mandouze (Maspero, 1962), p. 129.

폭력에 의해 고통 받았고 사라졌던 희생의 자리에는 남은 것이 있었다.

VI. 맺음말

프랑스 사회의 알제리전쟁 논의는 일정한 논지나 결론보다 폭력에 대면하고 희생을 배려하는 태도와 방식 자체를 보여준 것 같다. 집단기억은 다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수반해야 기억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기억의 틀을 잡아간다.[118] 개개 기억 주체의 자발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변화를 통해 알제리전쟁에 대한 제2의 기억은 내성(耐性)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글은 프랑스만을 무대로 했으며 알제리인들의 반응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그들은 알제리전쟁의 주체로써 현재의 논의에도 참여했어야 했다. 프랑스인들의 논의는 사실 그들 없이 진행된 반면의 논의이기도 하다. 다만 인상적인 것은 알제리의 민족주의적인 역사가가 식민지배와 피지배의 역사, 전쟁과 폭력, 고문과 희생의 역사를 두 나라의, 두 공동체의 역사로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이다.[119] 폭력에 의한 가해와 피해가 분명하지만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 두 공동체의 두 역사를 말하는 것은 여전히 힘의 논리이고 여전히 약자의 승복인 것인가. 아니면 지난날 지배와 피지배의 힘의 불균형을 이제 부인하는 논리에 도달하게 된 것인가.

주제어 : 알제리전쟁(Guerre d'Algérie) 식민주의(colonialisme) 고문(Torture) 폭력(Violence)

118) Jan Assmann ; John Czaplicka,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No.65 Cultural History/Cultural Studies (Spring-Summer, 1995), pp. 125-133.

119) Mahfoud Kaddache, "La France doit assumer son passé".

〈참고문헌〉

1. 정기간행물

AWAL Cahiers d'Études Berbères, 1985-2004
L'Esprit, 1954-1962
L'Express, 2000-2003
France Observateur, 1955-1962
L'Horizons maghrébins-Le Droit à la Mémoire, 1984-2004
L'Humanité, 1958-1960 ; 2000-2004
Le Monde, 1956-1958 ; 2000-2004
Le Monde diplomatique, 2000-2004
Le Nouvel Observateur, 2000-2003
Paris Match, 1955-1960

2. 간행사료

Harbi, Mohammed (rassemblées et commentées par), *Les archives de la révolution algérienne* (Les éditions jeunes afrique, 1981).
Kessel, Patrick, *Guerre d'Algérie Écrits censurés, saisis, refusés 1956-1960-1961* (L'Harmattan, 2002).
Mandouze, André (document présenté par), *La révolution algérienne par les textes* (Maspero, 1962).
Vidal-Naquet, Pierre (sous la direction de), *Les Crimes de l'armée française : Algérie 1954-1962*, dossiers réunis (La Découverte, 2001).

3. 도구

Dictionnaire historique et biographique de la guerre d'Algérie, par Jean-Louis Gérard (Eds. Curutchet, 2001).
Dictionnaire des livres de la guerre d'Algérie 1955-1995 : romans, nouvelles, poésie, photos, histoire, essais, récits historiques, témoignages, biographies, mémoires, autobiographies : 1955-1995, par Benjamin Stora (l'Harmattan, 1996).

Dictionnaire biographique de militants nationalistes algériens E.N.A., P.P.A., M.T.L.D.(1926-1954), par B. Stora (L'Harmattan, 1985).
Historical Dictionary of Algeria, Phillip Chiviges Naylor, Alf Andrew Heggoy (Rowman & Littlefield, 1994).
Historical Dictionary of European Imperialism, James S. Olson, Robert Shadle, Ross Marley, William G. Ratliff, Joseph M. Rowe (Greenwood Press, 1991).

4. 연구서와 증언

Aët-Embarek, Moussa, *L'Algérie en murmure, Un cahier sur la torture* (Suisse : Hoggar, 1996).
Ageron, Charles-Robert, *Histoire de la France coloniale* t. 2. 1914-1990 (A. Colin, 1990).
Ageron, C.-R. (s.d.), *La guerre d'Algérie et les Algériens 1954-1962* (Armand Colin, 1997).
Algérie 1956 : Livre blanc de la répression, Textes et documents réunis par Denise et Robert Barrat (Éditions de l'Aube, 2001).
Algérie Les romans de la guerre (Omnibus, 2002).
Alleg, Henri, *La Question* (Éditions de Minuit, 1958).
Amrane-Minne, Danièle Djamila, *Les Femmes algériennes et la Guerre de Libération Nationale en Algérie 1954-1962*, Thèse doctorat (Université de Reims, 1988).
Aussarès, Paul(Général), *Services spéciaux-Algérie 1955-1957* (Perrin, 2001).
Barrat, Robert, *Un journaliste au coeur de la guerre d'Algérie* (La Tour-d'Aigues: Éditions de l'Aube, 2001).
Ben Jelloun, Tahar, *Hospitalité française: racisme et immigration Maghrébine* (Seuil, 1997(1984)).
Bennoune, Mahfoud, *The Making of Contemporary Algeria, 1830-1987*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Benot, Yves, *Massacres coloniaux 1944-1950* (La Découverte, 1995).
Berchadsky, Alexis, *La question, d'Henri Alleg, Un "livre- évènement" dans la France en guerre d'Algérie* (juin 1957-juin 1958) (Larousse, 1994).
Branche, Raphaëlle, *La Torture et l'armé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1954-1962* (Gallimard, 2002).

Courrière, Yves, *La Guerre d'Algérie, 1954-1957* (Fayard, 2001).
Droz, Bernard & Évelyne Lever, *Histoire de la guerre d'Alg érie (1954-62)* (Seuil, 1962).
Duquesne, Jacques, *Pour comprendre la guerre d'Algérie* (Perrin, 2001).
Einaudi, Jean-Luc, *La Ferme Am éziane. Enquête sur un centre de torture pendant la guerre d'Alg érie* (L'Harmattan, 1991).
_____ . *La bataille de Paris : 17 octobre 1961* (Seuil, 1991).
Esprit, Ecrire contre la guerre d'Alg érie 1947-1962 (Hachette Littérature, 2002).
Feraoun, Mouloud, *Journal 1955-1962, Reflections on the French-Algerian War*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and London, 2000), (*Journal, 1955-1962*, Seuil, 1962).
Ferro, Marc (sous la direction de), *Livre noir du colonialisme, XVI^{e} - XXI^{e} si ècle : de l'extermination à la repentance* (Robert Laffont, 2003).
Guérin, Daniel, *Quand l'Algérie s'insurgeait 1954-1962* (La pensée sauvage, 1979).
Guerre d'Algérie & colonialisme (Comité contre la poursuite de la guerre en Afrique du Nord, 1958).
Hafid Keramane, *La Pacification. Livre Noir de six années de guerre en Alg érie* (Lausanne : La cité éditeur, 1960).
Hamoumou, Mohand, *Et ils sont devenus harkis* (Fayard, 1993).
Harbi, Mohammed, *Le F.L.N., mirage et r éalité* (Paris: Éditions Jeune Afrique, 1980).
_____, *Une vie debout. M émoires politiques*, tome 1 : 1945-1962 (La Découverte, 2001).
Hartmut, Elsenhans, *La Guerre d'Algérie, 1954-1962 : la transition d'une France à une autre : le passage de la IV^{e} à la V^{e} Ré publique*, traduit.(Publisud, 1999).
Historical Reflections, France and Algeria : From Colonial Conflicts to Postcolonial Memories, ed. by James D. Le Sueur and William B. Cohen, Vol. 28, no.2 (Summer 2002).
Horne, Alistair, *Histoire de la guerre d'Alg érie* (Albin Michel, 2000), (traduit : *A Savage War of Peace : Algeria 1954-1962*).
Images et colonies 1880-1962, par Laurent Gervereau, Nicolas Bancel, Pascal Blanchard (La Découverte/BDIC, 1993).
Journées d'études des secr étariats sociaux d'Alg érie, La lutte des algé

riens contre la faim (Éditions du secrétariat social d'Alger, 1955).
Julien, Charles-André, *L'Afrique du nord en marche, Nationalismes musulmans et souveraineté française* (Julliard, 1972).
Kauffer, Rémi, *OAS, histoire d'une organisation secrète* (Fayard, 1986).
La France en Guerre d'Algérie, L. Gervereau, Jean-Pierre Rioux, B. Stora (La Découverte/BDIC, 2002).
La Guerre d'Algérie dans l'enseignement en France et en Algérie, textes rassemblés par Abdeljalil Laamirie, Jean-Michel Le Dain, Gilles Manceron, Gilles Morin et Hassan Remaoun (Paris : Institut du monde arabe, 1995).
Labat, Séverine, *Les Islamistes algériens entre les urnes et le maquis* (Seuil, 1995)..
Lacheraf. Mostefa, *L'Algérie, nation et société* (Alger : S.N.E.D., 1978).
Lartéguy, Jean, Photos: Marc Flament, *Les dieux meurent en Algérie* (Paris: Éditions de la pensée moderne, 1960).
Liauzu, Claude (coordination), *Violence et colonisation, Pour en finir avec les guerres de mémoire* (Éditions Sylepse, 2003).
Louisette Ighilahriz, *Algérienne* (Fayard/Calmann-Lévy, 2001).
Mahfoud, Kaddache, *Et l'Algérie se libéra 1954-1962* (Alger: EDIF, 2000).
Mahfoud, Kaddahce *Histoire du nationalisme algérien* (Paris Méditerrané, 2003) (Alger : SNED, 1980).
Manceron, Gilles, Hassan Remaoun, *D'une rive à l'autre : la guerre d'Algérie de la mémoire à l'histoire.* (Syros, 1993).
Manceron, Gilles, *Marianne et les colonies* (La Découverte, 2003).
Mandouze, André, *Mémoires d'outre-siècle, tome 1 D'une résistance à l'autre* (Viviane Hamy, 1998).
Massu, Jacques, *La vraie bataille d'Alger* (Librairie Plon, 1971).
Mauss-Copeaux, Claire, *Appelés en Algérie, La parole confisquée* (Pluriel, 2001).
Memmi, Albert, *Portrait du colonisé, Portrait du colonisateur* (Gallimard, 1957).
Meynier, Gilbert, *Histoire intérieure de FLN 1954-1962* (Fayard, 2002).
Naylor, Phillip Chiviges, *France and Algeria : A History of Decolonization and Transformation*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00).
On a torturé en Algérie, Témoignage recueilli par Jean-Pierre Vittori (Éditions Ramsay, 2000).
Ouar Larbi, *Le procès de l'impérialisme et du colonialisme français* (Alger : Entreprise Nationale du Livre, 1986).

Rey-Goldzeiger, Annie, *Aux origines de la guerre d'Algérie 1940-1945* (La Découverte, 2002).
Rioux, Jean-Pierre (s.d.), *La guerre d'Algérie et les Français* (Fayard, 1990).
Rotmann, Patrick, *L'ennemi intime*, "L'épreuve des faits" (Seuil, 2002)
Rousset, Paul, *Emigration-Paupérisation et développement du capitalisme d'Etat en Algérie* (Bruxelles : Éditions contradictions, 1975).
Ruscio, Alain, *La décolonisation tragique 1945-1962* (Messidor/Éditions sociales, 1987).
Sadouni, Brahim, *Destin de harki* (Cosmopole, 2001).
Simon, Pierre-Henri, *Contre la torture* (Seuil, 1957).
Stora, Benjamin, *La Gangrène et l'oubli* (La Découverte, 1998).
Thénault, Sylvie, *Une drôle de justice* (La Découverte, 2001).
Todorov, Tzvetan, *Mémoire du mal. Tentation du bien, Enquête sur le siècle* (Robert Laffont, 2000).
Tristan, Anne, *Le Silence du fleuve : ce crime que nous n'avons toujours pas nommé* (Bezons : Au nom de la mémoire, 1991).
Vergès, Jacques, *Lettre ouverte à des amis algériens devenus tortionnaires* (Albin Michel, 2000).
Vidal-Naquet, Pierre, *L'Affaire Audin 1957-1978* (Eds. Minuit, 1989).
_____, *La Torture dans la république 1954-1962* (Eds. Minuit, 1998).

5. 연구논문

김택현, 「서발턴 연구 : 근대성과 식민성을 넘어서」, 김기봉 외 지음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2), pp. 401-429.
Ageron, C. R. "Complots et purges dans l'armée de libération algérienne, 1958-1961", *Revue du XX^e siècle* (juillet-septembre 1998).
Barbour, Nevill, "The Significance of the Conflict in Algeria", *African* Affairs, Vol. 36, No. 222 (Jan., 1957), pp. 20-31.
Branche, R., S. Thénault, "L'impossible procès de la torture pendant la guerre d'Algérie", *Justice, politique et République. De l'affaire Dreyfus à la guerre d'Algérie* (s.d.) Marc Olivier Baruch et Vincent Duclert (Éditions complexe, 2002).
Brett, Michael, "Anglo-Saxon Attitudes : The Algerian War of Independence in Retrospect", *Journal of African History*, 35 (1994), pp. 217-235.
Cohen, William B., "The Algerian War and the Revision of France's

Overseas Mission", *French Colonial History*, Vol.4 (2003), pp. 227-239.
_____, "The Colonized as Child : British and French Colonial Rule", *African Historical Studies*, Vol.3, No.2 (1970), pp. 427-431.
Fabre, Thierry, "France-Algérie : questions de mémoire", *Annuaire de l'Afrique du Nord*. 28 (1990), pp. 353-360.
Hargreaves, Alec, "France and Algeria, 1962-2002 : turning the page", *Modern & Contemporary France*, Vol.10, no.4 (2002), pp. 445-448
Harrison, Christopher, "French Attitudes to Empire and the Algerian War", *African Affairs*, Vol. 82, No. 326 (Jan., 1983), pp. 75-95.
Lelieur-Fischer, Juliette, "Prosecuting Th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during the Algerian War : an Impossible Endeavor?",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2 (2004), pp. 231-244.
Noureddine Abdi, "Origine et fondement de la subodination du politique au militaire en Algérie", *AWAL* 24 (2001), pp. 8-19.
Paul-Marie de la Gorce, L'Algérie et les grandes puissances, *Recherches internationales*, n° 43-44 (Hiver-printemps 1996), pp. 21-42.
Perinbam, B. Marie, "Fanon and the Revolutionary Peasantry-The Algerian Case",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11, No. 3 (September, 1973), pp. 427-445.
Revel, Jacques, "Histoire versus Mémoires en France aujourd'hui", *French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18, No. 1 (Spring 2000).
Thénault, Sylvie, "Le 17 octobre 1961 en question", *Jean Jaurès cahiers trimestriels* (1998-07/09) n° 148, pp. 89-104.
Vingtième siècle, "Les guerres franco-françaises", n° 5, 1985.
Yahia H. Zoubir, "U.S. and Soviet Policies towards France's Struggle with Anticolonial Nationalism in North Africa", *Canadian Journal of History*, Vol. 30, pp. 439-466 (December, 1995).

KCI

〈Résumé〉

Une présentation interprétative à l'égard du débat récent en France sur la guerre d'Algérie

Seo-Kyung Noh

Le débat récent qui se déroule en France sur la guerre d'Algérie est un phénomène historique, assez important. Notamment les chercheurs qui se sont consacrés à l'histoire coloniale montrent leur désir de l'examiner et de l'analyser. Les polémiques ardentes et réflexives sont motivées sans doute par la nécessité de reconstruire son passé noir. Cela s'inscrit dans la tendance mondiale de faire resurgir des mémoires occultées de l'amnésie. En particulier, la France ne peut pas négliger la situation violente et absurde de l'Algérie vécue dans les années 1990.

Cependant, considérant l'attitude de l'Etat français qui n'assume pas sa responsabilité sur les actes d'horreur durant sa domination, des articles et des mémoires entassés sur la guerre d'Algérie (1954-1962) nous posent des questions. Il était vrai que par les accords d'Evian, les deux parties engagées dans la guerre, France et Algérie, ont dressé le bilan dicté par leurs propres intérêts. Pourtant les souffrances et les sacrifices que le peuple algérien ont subis à travers plus d'un siècle du joug du colonialisme, nous paraît-il, méritent plus de droit et plus d'égard que cela.

Nous voulons suggérer ici que, tout au long de ces débats, les Français sont arrivés à reconnaître le fait banal que la violence a bien accompagné la guerre d'Algérie. Qu'est-ce que cela signifie? Le message n'est d'autre que les colonisés ont été des hommes, pas des choses, comme Aimé Césaire l'a bien révélé. Cette thèse a été bien soutenue par les Français eux-mêmes pendant la guerre d'Algérie. Elle a dû attendre plusieurs décennies pour être acceptée par la société française. Les hommes et les femmes, victimes du système colonial n'ont pas disparu en vain.

〈Summary〉

An Interpretative Presentation of the Recent Debate Held in France on the Algerian War

Seo-Kyung Noh

The recent debate held in France on the Algerian War is worthwhile to be noted and analysed as a historical phenomenon especially by those who are concerned with the colonial studies. The fervent public debate was motivated certainly by the need to reconstruct the dark side past within the world-wide trend of resurgence of memories from amnesia. Particularly the complicated, absurd and violent situation of the 1990's Algeria was linked with these reflec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French State's avoidance of responsibilities toward the colonial history, we have a doubt what is the conclusion of such voluminous writings and images presented for years. Even if the Evian Accords could be taken as a final account of both parties, it seems that the Algerian people's century-long sufferings and sacrifices under the French colonization have a more right to claim than that.

Here, my suggestion is that through the debate, the French people came to recognize the simple fact that violence was accompanied constantly to the Algerian war. What is the meaning of this assertion everybody knows? The message is that the colonized people were evidently human beings, not at all things as Aimé Césaire exposed. This thesis sustained already during the Algerian war by the French people themselves should have to wait for several decades to be accepted in general. The victimized man and woman under the colonial violence then have not gone in vain.